

➤ Advice : 5

인터넷강의 활용법

합격생이 전하는 수험생활

1. 평소 성적과 배경설명

서울 대형 로스쿨 재학했고, 2학년 2학기까지 누적 성적은 상위 85%, 100명 중 85등 정도였습니다. 12회 변호사시험 성적은 총점 952.80, 등수로는 1,170등입니다. 선택법은 환경법을 택했습니다. 육아를 하며 수험생활을 해야했던 탓에, 로스쿨 입학 후부터 변호사시험 2주일 전까지 하루에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공부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2. 교재선택

| 과목 | 암기장 | 기출사례집 | 진도별 모의고사 |
|-----|-----------------------------|---------------------------|------------------------------|
| 민법 | 김남훈 변호사/각 암기장 | S 변호사/민사법 사례연습:요약편 | 김남훈 변호사/선택형, 사례형 진도별 모의고사 |
| 민소법 | | L 변호사/인사이트 상법 사례집(실전편) | |
| 상법 | | | |
| 형법 | 이재상 박사/쟁점별 핵심암기장 | 없음 | 이재상 박사/선택형, 사례형 진도별 모의고사 |
| 형소법 | 정주형/All-in One 로스쿨 형사소송법 | K교수 /작은 변사기 형소법 | 이재철 강사/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
| 행정법 | K 변호사/행정법 300 | K변호사 기출사례집 | J 박사/선택형, 사례형 진도별 모의고사 |
| 헌법 | K변호사 /헌법 300 | K변호사 기출사례집 | 선동주 강사/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 |

3. 공부방법

(1) 선택형

3학년 1학기 무렵 OX형태의 객관식 문제집이 출간될 때부터 구매하여 조금씩 풀어보려고 했습니다만, 학교 수업과 병행하느라 1학기가 마무리 될 때까지 꼼꼼히 공부하지는 못했습니다.

3학년 2학기 들어서 시간이 부족함을 느끼고 객관식 공부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개인사정상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없어서 학원 강사님들이 출간한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딸린 지문을 하나씩 꼼꼼히 되새기며 선지 옆에 연필로 OX 표시를 했습니다. 틀린 선지에 관련된 판례나 조문이 사례형으로 나오면 뭐라고 쓸 지, 사례형으로는 어떻게 사실관계가 구성될지 생각하면서 풀었습니다.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과목별로 5회독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2학기 종강 이후 변호사시험 전까지는 틀린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암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0월 모의시험까지 선택형에서 100개를 넘어본 적이 없는데, 변호사시험 선택형에서 117개를 맞춘 걸 보면 잘한 선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에는 수년간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을 강의해오신 강사님들이 ①주요 기출지문, ②미기출 판례 중 주요지문, ③최신판례, ④최근 타 지역 기출지문 중 유의미한 지문들을 모두 분석·정리하여 출제된 문제들이 실려있습니다. 스스로 위 내용을 정리하고 공부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던 저에게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는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매우 효율적인 공부수단이었습니다.

다른 강사님들의 문제는 보질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가 본 분들의 진도별 모의고사는 전부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한림법학원에서 책으로 출간된 선택형 진도별 모의고사는 지문에 대한 해설이 매우 상세하여 해설을 공부하는 것 자체로도 사례형이나 기록형까지 공부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진도에 나온 지문들이 실제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도 상당수 기출되었고, 특히 공법 선택형 시험 직전에 선동주 강사님의 책에서 본 근로의 권리와 관련된 지문이 그대로 기출되어 변호사시험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사례형

1) 2학년 겨울방학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의 문제 및 해설이 모두 포함된 회차별로 된 기출사례집을 주교재로 삼아 공부하면서 암기장과 교과서는 발췌독했습니다. 공/형/민 모두 기출사례집(모의시험이 포함됨)을 학교 수업과 병행하며 반복해서 보았는데 대략 5번 정도 반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방식은 해설을 먼저 보고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제시된 사실관계를 읽었고, 그래도 이해가 안되면 암기장이나 기본서를 찾아서 읽었습니다.

진도별 사례집이나 암기장으로 공부하다보면 갈수록 집중력이 흐트러져 뒷부분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회차별 사례집으로 공부하면서 ①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항목을 집중해서 학습할 수 있었고, ②100점 혹은 150점의 배점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출제되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③특정 판례에서 반드시 써야할 핵심법리를 익히는 데에는 암기장보다 사례집 해설을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2) 3학년 여름방학부터 3학년 2학기 개강 전까지

위 과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후에는 100점 배점의 문제를 기준으로 10분 내 쟁점을 찾고 목차를 써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실제 변호사시험장에서는 당황하고 흥분한 상태일 것이 매우 유력했기에, 공부할 때는 다소 타이트하게 쟁점과 답을 추출하는 연습을 하려했고, 실제로 변호사시험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사법을 진득하게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발췌독해온 김남훈 변호사님의 암기장(민법, 민소법, 상법)을 숙독했습니다.

3) 3학년 2학기 개강 이후 변호사시험 전까지

개강 무렵까지 약 10개월간 동일한 기출사례집을 반복해서 본터라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의 진도별·회차별 모의고사 문제·강의로 추가로 공부했습니다. 당시에는 변호사시험을 코앞에 두고 새로운 자료를 늘리고 강의를 듣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강사님들 모의고사 문제와 강의를 안봤다면 불합격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미기출 주요쟁점과 최신판례가 반영된 모의고사 문제로 공부하니 혹여나 빼먹고 공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해소되었고, 시험장에서의 시간관리나 당황스러움에 대한 연습도 되었습니다.

2학기 학교 수업이 대부분 손으로 답안을 쓰는 수업이었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를 손으로 다 써보지는 않았고 쟁점 추출만 하고 강의를 통해 출제된 판례를 이해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3) 3학년 2학기 종강 직후부터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이 시기에는 민사법에 할애할 시간이 많지 않고 많이 할애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법의 경우 김남훈 변호사님의 파이널 강의를 구매하여 변호사시험 민사법 사례형 시험시간 직전까지 다른 교재는 보지 않고 수업자료였던 실전용 답안지만 따로 제본하여 시험 직전까지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형법의 경우에는 이재상 박사의 진도별 모의고사 중 실전용 답안지와 쟁점별 핵심암기장의 답부분만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형소법은 기존에 보던 기출사례집을 계속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공법은 나름대로 자신있는 과목이라 생각하고 기출사례집과 J 박사님 모의고사만 반복했는데, 과신한 탓인지 생각보다는 저조한 점수를 얻었습니다.

김남훈 변호사님과 이재상 박사님 실전용 답안해설이 정말 좋았던 점은 방대한 민사법과 형법 시험범위 중 까먹어서는 안되는 쟁점이나 판례, 조문을 빠른 시간 내에 반복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김남훈 변호사님과 이재상 박사의 강의 및 교재로 공부를 해오다 보니 실전용 답안

지도 익숙하게 학습할 수 있었고, 변호사시험 기간 중 휴식일에 해당 자료를 리뷰하며 민사법 전부를 1회독하고, 형사법 시험 전 날 형법 전부를 1회독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6, 8, 10모를 치르는 동안 단 한 번도 모든 과목의 사례형 문제에 대한 답을 전부 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통 1문을 다 쓰면 2문은 절반만 쓰다가 끝나고 3문은 1~2문제밖에 못쓰고 심지어 답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12회 변호사시험 때는 단 한 문제도 빼놓지 않고 전부 쓸 수 있었습니다. 성적표를 보니 답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문제를 누락없이 다 채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얹지만 핵심이 담긴 교재나 자료를 반복 숙달하다보니 다행히 시간관리에 성공했던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2) 기록형

기록형은 학교수업 시간 외 따로 계획을 짜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더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기록형을 위한 공부시간을 더 확보하고 더 나은 점수를 얻었을텐데 아쉽습니다.

다행인 점은 학교에서 기록을 써볼 수 있는 수업이 다수 있었고, 공법실무, 형사변호사실무, 민사법실무 등 기록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은 모두 수강하며 대강의 틀은 작성할 수 있게 연습했다는 점입니다. 학원강의를 수강하게 되신다면 기록형 수업을 통해 작성하는 연습을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4. 맺음말

수험생마다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인 공부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현재 공부가 되어 있는 상태는 어떠한지, 처한 여건에서 수험공부에 가용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인지 파악한다면, 합격에 이르는 자신만의 길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스쿨 3학년에 올라가며 제 스스로를 분석하고 공부방법을 설계했는데, 정하고 보니 한림법학원의 강사님들의 강의와 커리큘럼 그리고 교재가 제게 딱 맞았습니다. 한 번도 대면해본 적은 없지만, 다시 한 번 좋은 강의와 교재를 제공해주신 김남훈 변호사님과 이재상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남훈 변호사님과 이재상 박사님을 비롯한 한림법학원의 강사님들을 믿고 자신만의 공부방법을 믿고 가신다면 모두 내년 4월에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